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폐기촉구 성명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하라!

우리 거창군의회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는 과거 군국주의 망상으로서 일제 침탈을 정당화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토의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천 년 동안 어업행위를 해 온 소중한 생활 터전이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 소유의 배타적인 영토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거듭된 경고와 온 국민의 들끓는 반대함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3월 16일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데 이어, 일본의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상의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해야 한다”는 망언에 대해 거창군민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는 일본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의 법리를 무시하면서 날조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 하고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를 침략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거창군의회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의 망상과 역사의 왜곡을 통탄하며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1. 일본 시마네현은 군국주의적 책략에서 나온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앞드려 깊이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 나카야마 나리아키 일본 문부과학상은 망언에 대해 즉각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 직을 사퇴하라!
3. 일본정부는 무지한 시마네현의 행동과 문부과학상의 망언에 대해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로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독도와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일본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라!
4. 정부는 시마네현 조례가 완전히 폐기되고, 주권침해 결과가 원상 회복 될 때까지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5. 아시아 국가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국제법질서를 부정하는 조례의 제정이 가져올 수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한 세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정을 촉구하는 데 동참하라!
6. 우리는 우리의 강토요 자존심인 독도 사수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전 군민과 함께 그 뜻을 강력하게 펼쳐 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2005. 3. 31.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